

실버세대를 위한 브랜드에 나타난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연구

임현정 · 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esign in the Brand for Silver Generation

Hyun-Jung Lim and K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ilver fashion design by analyzing the silhouettes, colors, patterns, textures, and details in the brands for silver generation in Korea. Photographs of silver generation women's brands were collected to be analyzed with a focus on formative characteristics using SPSS packages. The result revealed the common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adam-brands and designer boutique brands—they both use semi-fitted silhouette with lighter colors for upper garment, and darker shades for lower garment. When it come to textile, upper garment was mainly made with hard and soft textile. In patterns, plain, flower print, and asymmetrical patterns were used for upper garment, and plain patterns for lower garment. Despite the gap in price, there were few differences in madam-brands and designer boutique brands with partial differences in the kinds of patterns, the proportion of patterns, the details such as zip-ups and buttons, beads, laces, and ruffles, and the use of different textiles for each brand.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design that helps cover the body shapes of silver generation customers while highlighting the unique design of each br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ilver fashion.

Key words : Silver fashion, formative characteristics

1.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의학의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건강의 증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를 가져왔고,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짧은 기간 동안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과거의 고령층이 과거 가정과 이웃에만 머물렀던 활동범위에 반해 최근의 고령층은 교육수준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노인대학, 봉사활동 등 여러 모임을 통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의 증가를 통하여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고령층의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라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외모에 관심이 나타내게 되었다(최혜선, 2002). 자신에게 적합한 디자인과 실루엣을 가지는 의복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경제력향상에 따른 구매력의 증가는 고령층의 의류에 대한 구매욕구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고령자들을 위한 산업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의류산업은 고령층의 구매력과 구매욕구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

나게 된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체형의 변화가 현저하여 노년 여성들의 신체에 적절하게 어울리면서 체형을 보다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옷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옷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노인이 중년보다 의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Hom, 1981), 매력적인 의복은 고령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어 사기를 높여주고 자아확신을 줌으로써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Kernaleguen, 1978). 고령층에게도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의복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어울리고 신체를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며 잘 맞는 의복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복은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적 수용, 그리고 사회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경숙, 2000).

이처럼 고령층의 사회적 관계 지속 및 사회활동, 자아개념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에 대해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과 비슷한 의복가치와 욕구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고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전문브랜드나 디자이너 부띠끄 또는 고가의 의류매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브랜드의 부족으로 인해 고령층의 의복이 젊은층의 기호와 체형에 맞추어 제작되는 실정으로 인해 고령층은 의복구입 시 문제점 및 불만족이 제기되고 있다(서미아 외, 1995; 정삼호, 2005)의 국내 실

Corresponding author; Hyun-Jung Lim
Tel. +82-51-635-2090, Fax. +82-51-645-2090
E-mail: mousai2003@hanmail.net

버 브랜드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의 고령층의 의류산업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고급부터 정도이며,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성복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고령층이 실제 착용하는 브랜드는 중년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마담장 브랜드, 디자이너 부띠끄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을 위해 신체적 기능 및 체형의 변화, 심리적 변화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버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의 마담/실버 브랜드의 실루엣, 색채, 무늬, 소재, 디테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실버 패션의 디자인에 관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층의 추구이미지에 적합하고 신체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여 보다 젊고 즐거운 노후를 누림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버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 동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는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노년 여성의 신체의 두드러진 변화로는 중년기에 비해 키는 줄어들고 머리는 앞으로 숙여지며 가슴, 배, 엉덩이 부위는 증가하는 반면, 사지부는 가늘어지고 등과 어깨가 두꺼워져 등이 굽은 형태를 나타낸다(김혜경, 1999). 노년 여성의 신체변화는 노년 남성에 비해 체형의 변화가 더욱 다양해진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외관상의 더욱 보기 좋은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젊은층과 다른 노년층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박재옥 외(1985)는 노년 여성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의복에 대한 욕구가 있어 변화된 체형을 보완해 주는 디자인과 맞춤새가 좋은 의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 여성의 의생활 의식에서 의복의 중요성이 비교적 높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 노년 여성의 의복에 대한 흥미는 높다고 하였으며, 의복의 선택기준으로 활동성 심미성의 순으로 미적인 측면도 중시한다 하였다. 이관이(2004)의 연구에서 53세 이상의 여성들은 단정함, 고상함, 우아함, 건강함, 품위있음, 여성스러움을 이상적 여성미로 선호하였다고 하였다.

노년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면 장안화(2006)는 노년층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택기준은 체형커버이며 디자인은 젊은 감각으로 패턴만 실버체형으로 하여 편안하면서 젊어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상의 실루엣은 시미피트, 팬츠는 일자형의 발목(9부)길이, 스커트는 부분 고무밴드에 부분 플리츠, 무릎 바로 아래 길이를 선호하며, 무늬는 상하 아이템 모두 무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튀지 않는 잔잔한 무늬를 선호하여 세련되고 품위있는 의복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이미지와 선호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배현숙·유태순(2000)은 연령에 따른 선호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자켓은 60대

는 테일러드 칼라, 셋인슬리브, 엉덩이 길이, 무지의 자켓을 선호하며, 70대는 오픈칼라만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선호디자인이 일치하였다. 스커트는 60대는 타이트스커트, 노말길이, 무지의 스커트를, 70대는 플리츠스커트, 미디길이, 무지의 스커트를 선호하였으며 블라우스는 60대와 70대 모두 오픈칼라, 라운드네크라인, 긴 길이의 퍼프 슬리브, 무지의 블라우스를 선호하였다. 선호색상과 문양을 살펴보면 선호색상은 봄에는 분홍, 미색, 베이지, 여름에는 하늘색, 파랑, 연구, 가을에는 밤색, 자주, 베이지, 겨울에는 검정, 밤색, 회색으로 계절의 구분이 명확하였다. 선호 문양은 문양이 없는 단색, 기하학 문양, 전통문양의 순으로 나타났다(서미아 외, 1995).

국내 실버 브랜드의 패션 트렌드의 반영에 관한 연구에서 정삼호(2005)는 국내에서는 실버층의 사이즈가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실루엣이나 스타일보다는 색상과 소재에 다양화를 추구하여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령층의 경제력과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자신의 체형에 적합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잘 맞는 의복이 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정삼호 외, 2004).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이 서울시내 거주 60세 이상 남녀노인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션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2000년의 실버층은 젊은층 못지않은 패션감각과 미적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년층을 위한 의류 브랜드 매장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년층의 신체적 특징에 맞는 사이즈와 노년층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반영된 실버 고객의 성향에 부합하는 실버패션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노년층의 선호디자인과 미의식,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노년층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년층의 선호 디자인의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노년층을 위한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연구 또한 노년층을 위한 의복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실버세대의 정의

UN세계 노인학회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버에 대한 구분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후부터 노인으로 자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최혜선, 2002), 인구통계적측면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기도 한다. 남윤자·유숙희(1996)는 노인계층의 의생활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여성을 노년층 여성으로 규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령에 따라 50세 또는 55세 이상으로 보며, 50~54세 Baby Boomers, 55~64세 Transitionals, 65~74세 Active Retirees, 75세 이상 Matures의 4그룹으로 나누기

도 한다(백재은, 2005).

본 연구에서는 실버세대의 정의를 60세 이상의 노년층뿐만 아니라 50대의 예비노년층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였다.

3.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마담정장 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2.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 마담정장 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비교한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에 사용되는 사진을 수집하기 위한 브랜드 선정은 국내 브랜드 연감의 브랜드 유형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브랜드의 선정은 첫째, 브랜드 유형을 국내 브랜드 연감에 나타난 분류와 동일하게 마담정장, 디자이너부띠끄, 시티캐주얼, 타운웨어, 레포즈캐주얼로 분류하고, 메인타겟과 서브타겟을 포함하여 50대 이상으로 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여성복 시장 분석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매출순위가 높은 브랜드를 선정하여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는 클라라운, 쉐리나운, 가르벤텡, 이동수오리지널, 마담정장브랜드는 닥스, 까르뜨니트, 에스칼리에, 모라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브랜드를 선정 후 2006년 05월~06월의 기간 동안 인터넷 쇼핑몰, 패션 브랜드 홈페이지, 매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진 493장을 수집 후 분석하였다.

수집된 사진 493장을 중심으로 국내 마담/실버 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형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분석하였다.

마담정장브랜드별, 디자이너브랜드별, 마담정장브랜드와 디자이너브랜드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통계패키지 12.0K를 사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마담정장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마담정장브랜드 닥스, 에스칼리에, 까르뜨니트, 모라도를 분석하였다. 각 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상의를 중심으로 차이가 나타나며 하의와 원피스는 그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닥스는 현대적 감각의 엘레강스한 고급감과 여성스러움을 표방하며 브리티쉬 트레이디셔널의 전통과 현대적 세련미를 표현하였다. 세미피티드 형태와 밝은톤은 기대치보다 관찰빈도가 높게 나타나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여진다. 상의는 세미피티드 형태(79.2%)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박시한 형태(12.5%)가 나타났다. 닥스브랜드의 고유무늬나 자주 나타나는 Color에서도 알 수 있듯이 Y(12.6%)와 YR계열(34.0%)의 색상이 두드러졌다. 시즌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톤은 상의는 밝은톤(48.6%), 은은한톤(30.6%), 어두운톤(12.5%), 선명한톤(8.3%)로 나타나며, 하의는 어두운톤(47.6%), 은은한톤(28.6%), 밝은톤(23.8%)로 나타나 상의는 밝은톤을, 하의는 어두운톤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재의 사용은 체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않고 실루엣을 나타낼 수 있는 딱딱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상의는 딱딱한 소재와 함께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표 1. 조형적 특성 분석 기준

조형적 요소		세부항목
아이템	상의	자켓, 블라우스, 티셔츠, 니트, 가디건, 점퍼, 코트, 기타
	하의	스커트, 바지
	원피스	
실루엣	상의	세미피티드, 피티드, 박시, A
	하의	A라인, 스트레이트, 플리츠, 플레러, 트럼펫
	원피스	H, X, 기타
색채	색상수	단색, 이색이상
	유/무채색	유채색, 무채색
	컬러	R, YR, Y, GY, G, BG, B, PB, P, RP, BK, WH
	톤	밝은, 선명한, 은은한, 어두운
표면	재질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광택있는, 복합
	무늬	무지, 플라워, 페이스리, 체크, 사실무늬, 기하학무늬, 양식무늬, 추상무늬
세부 장식	디테일, 트리밍	단추, 포켓, 겹입, 비즈, 바인딩, 러플&프릴, 레이스
	칼라	테일러드, 플랫, 컨버터블, 스탠드, 기타
	넥라인	V, 라운드, 스퀘어, 기타
	소매	셋인슬리브, 7부셋인슬리브, 3부셋인슬리브, 롤업슬리브, 셔츠슬리브, 슬리브리스, 퍼프슬리브, 밴드커프스슬리브, 기타

표 2. 마담정장브랜드의 상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분석
관찰빈도(기대빈도) %

디자인특성	브랜드명				
	닥스	까르뜨니트	에스칼리에	모라도	
세미피티드	57(49.1)	24(20.1)	41(39.0)	20(16.4)	
	79.2	52.2	60.6	48.8	
피티드	6(11.5)	3(8.6)	0(2.7)	5(11.2)	
	8.3	6.5	0.0	12.2	
실루엣 박시	9(11.5)	17(12.2)	27(24.5)	16(11.9)	
	12.5	37.0	39.7	39.0	
A	0(0.0)	2(4.0)	0(1.8)	0(1.5)	
	0.0	4.3	0.0	0.0	
전체	72(72.0)	46(46.0)	68(68.0)	41(41.0)	
	100.0	100.0	100.0	100.0	
$\chi^2 : 31.484 (p<0.001)$					
단색	36(36.3)	28(31.8)	18(20.3)	12(18.9)	
	50.0	60.9	26.5	29.3	
색상 이색이상	36(35.7)	18(14.2)	50(47.7)	29(22.1)	
	50.0	39.1	73.5	70.7	
전체	72(72.0)	46(46.0)	68(68.8)	41(41.0)	
	100.0	100.0	100.0	100.0	
$\chi^2 : 18.116 (p<0.001)$					
유채색	49(47.5)	31(27.1)	29(30.9)	24(22.1)	
	68.1	67.4	42.6	58.5	
무채색	12(10.5)	11(15.3)	10(10.6)	6(9.8)	
	16.7	23.9	14.7	14.6	
복합	11(14.0)	4(3.5)	29(26.5)	11(9.1)	
	15.3	8.7	42.6	26.8	
전체	72(72.0)	46(46.0)	68(68.0)	41(41.0)	
	100.0	100.0	100.0	100.0	
$\chi^2 : 22.878 (p<0.001)$					
밝은	35(31.5)	20(19.5)	36(37.1)	25(21.5)	
	48.6	43.5	52.9	61.0	
선명한	6(4.9)	7(4.7)	3(2.6)	5(6.5)	
	8.3	15.2	4.4	12.2	
톤 은은한	22(21.7)	5(3.5)	4(3.5)	2(2.6)	
	30.6	10.9	5.9	4.9	
어두운	9(14.0)	14(18.3)	25(24.7)	9(10.4)	
	12.5	30.4	36.8	22.0	
전체	72(72.0)	46(46.0)	68(68.0)	41(41.0)	
	100.0	100.0	100.0	100.0	
$\chi^2 : 33.568 (p<0.001)$					
딱딱한	45(52.4)	16(21.8)	6(7.9)	21(24.1)	
	62.5	34.8	8.8	51.2	
부드러운	27(18.9)	22(15.9)	55(52.1)	13(9.8)	
	37.5	47.8	80.9	31.7	
재질 비치는	0(0.7)	0(0.6)	6(7.1)	5(4.6)	
	0.0	0.0	8.8	12.2	
광택있는	0(0.0)	8(7.7)	1(0.9)	2(2.6)	
	0.0	17.4	1.5	4.9	
전체	72(72.0)	46(46.0)	68(68.0)	41(41.0)	
	100.0	100.0	100.0	100.0	
$\chi^2 : 77.918 (p<0.001)$					

반면, 하의는 대부분 딱딱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가 기대빈도보다 많은 관찰빈도를 나타내어 닥스의 두드러진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소재의 사용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 복합소재나 광택있는 소재의 사용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상의는 자켓과 블라우스나 티셔츠에서 딱딱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의는 전체적으로 딱딱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부드러운 소재는 주로 원피스에 사용되어 전체적인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늬는 상하의 모두 무지(상의 34.7%, 하의 61.9%)가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체크무늬가 사용되었다. camel, vicuna, black를 혼합한 체크무늬를 브랜드 고유 체크무늬로 사용하고 있다. 닥스는 고유 무늬를 가지지 않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닥스의 고유 체크무늬(27.8%)의 이용이 두드러지며, 이외의 다른 무늬를 활용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스커트는 주로 플리츠가 있는 스커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체크 또는 화려한 프린트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원피스는 H 라인으로 앞트임의 단추를 이용한 여밈과 허리에 벨트로 포인트를 준 형태가 많이 나타났으며, 원피스의 형태는 단순하지만 체크무늬의 전체적 사용이나 부분적 사용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자켓, 블라우스는 무늬가 전체적으로 사용되거나 코트류 또는 가디건은 전통적인 감각과 젊은 감각의 캐주얼을 고급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닥스 고유체크무늬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무늬를 표현하기보다 칼라, 소매의 커프스, 앞여밈, 단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커트와 바지의 하의류에 무늬를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체크무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자켓은 테일러드 칼라가 사용이 되었으며, 블라우스는 컨버터블 칼라가 주로 나타난다. 니트 또는 티셔츠에서는 대부분 라운드형의 니크라인을 사용하였다. 비즈, 스팅글 등의 여성스러운 디테일은 자제하고 주로 단추나 짚엮, 포켓을 사용하여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다.

에스칼리에에는 화려하지만 절제된 유럽풍 이미지를 심플하게 표현하였다. 분석결과 박시실루엣, 이색이상의 색상 조합, 유채색의 많은 사용, 유무채색의 복합적인 색채의 사용, 부드러운 재질의 사용이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많은 빈도를 나타내어 에스칼리에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분석된다. 상의는 세미피티드 형태(60.3%), 박시형태(39.7%)로 표현되며, 스커트는 H형 스커트가 많이 나타났다. 색상은 상의는 이색이상(73.5%)의 색상을 사용하고, 하의는 단색(83.3%)을 나타내었다. 무채색인 BK(26.0%)와 WH(14.3%)가 많이 보여지며, 다음으로 RP(13.0%)과 PB(11.7%), B(10.4%)등의 색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톤은 밝은톤과 어두운톤이 보여지는데, 상의에서 밝은톤(52.9%)과 어두운톤(36.8%)이 하의 또한 밝은톤(50.0%)과 어두운톤(50.0%)이 사용되었다.

재질은 부드러운재질(76.6%)이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에스칼리에 브랜드가 니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재질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상의는 부

드러운 재질(80.9%)이 주로 나타나며, 하의는 체형을 보완해 주기 위해 딱딱한 재질(50.0%)이 부드러운 재질(33.3%)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트전문브랜드라는 특성으로 인해 하의 스커트에서 니트의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이 타 브랜드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무늬는 무지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며, 다음으로 플라워 무늬, 기하학무늬, 추상무늬가 사용되었는데, 상의는 플라워, 기하학, 추상무늬 등의 많이 나타나는 반면, 하의는 무지(83.3%)가 주를 이루며 플라워 무늬가 나타나기도 한다. 무늬의 사용은 전체적으로 무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의에는 팔부분을 제외한 몸관부분에 크고 화려한 무늬를 표현하거나, 햄라인, 칼라, 포켓 등에 포인트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하의에서 무늬 사용이 비율이 적은 것은 하체체형의 두드러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화려한 무늬를 이용한 대조배색과 전체적인 유사배색이 나타났다. 무늬는 큐빅이나 부분적으로 무늬를 사용하거나, 니트 자체의 조직감을 이용한 무늬를 통하여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니트를 사용하여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편안하게 나타내는 원피스가 나타나며, 니트류의 가디건과 니트 티셔츠의 앙상블, 니트소재와 짚엮을 활용한 자켓형의 가디건도 나타난다. 자켓, 티셔츠, 가디건을 중심으로 큐빅을 칼라, 햄라인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절제된 화려함을 표현하였으며, 가디건은 칼라, 앞여밈, 단 등의 햄라인에 프릴과 러플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니트류의 상의가 많아 포켓의 사용이 적으며 가디건과 자켓에 단추와 짚엮이 사용되었다. 목선, 칼라, 소매단, 치마단 등의 햄라인, 앞여밈선에 이색의 배색선 또는 무늬를 넣어 장식적 요소를 더하기도 하였다.

까르뜨니트는 페미니즘을 모던하게 표현한 도회적 감성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린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엘레강스함을 표현하였다. 실루엣에서 스트레이트와 박시실루엣, 이색이상의 색상 조합, 유채색, 선명한톤,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 기대빈도보다 관찰빈도가 많이 나타나 까르뜨니트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다. 상의에서 세미피티드형태(52.2%)와 박시형태(37.0%)가 많이 보이며, 하의는 H라인(47.1%)과 A라인(23.5%)이 주로 나타난다. 색상은 단색이 이색이상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며, BK(20.5%)와 선명한 톤의 RP(20.5%), PB(17.9%)의 다양한 색상이 화려하게 나타났다. 톤은 밝은톤과 어두운톤이 주로 나타났는데, 상하의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상의는 밝은톤(43.5%), 어두운톤(30.4%), 선명한톤(15.2%), 은은한톤(10.9%)의 순으로 나타나며, 하의는 어두운톤(51.6%), 밝은톤(41.9%)로 나타났다. 상의는 다른 브랜드보다 비교적 선명한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하의도 밝은톤이 많이 나타나, 색상에서 다른 브랜드보다 화려함을 알 수 있다.

재질은 딱딱한 재질, 부드러운 재질, 광택있는 재질이 나타나 타 브랜드와 비교하여 광택있는 재질이 많이 사용되었다. 상의는 부드러운 재질(47.8%)과 딱딱한 재질(34.8%), 광택있는 재질(7.4%)로 나타났는데, 니트류가 많아 부드러운 재질이 많

이 사용되었고, 하의 또한 딱딱한 재질(64.5%), 부드러운 재질(16.1%)과 광택있는 재질(16.1%)이 사용되어 하의는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 딱딱한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니트류와 광택소재의 사용 또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피스는 딱딱한 재질 보다는 부드러운 재질과 비치는 재질을 사용하여 페미니즘을 표현한다.

무늬는 전체적으로 무지(60.3%)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플라워, 추상무늬 등이 사용되었다. 상의는 플라워, 기하학, 추상무늬 등이 사용되었으며, 하의는 주로 플라워무늬를 사용하였다. 자켓은 4버튼이나 샷저자켓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며, 햄라인의 바인딩이나 레이스장식, 이색의 큰 스티치가 나타난다. 타 브랜드보다 무늬의 사용이 적게 나타났는데, 무늬의 사용보다는 니트의 짜임새와 광택있는 소재, 디테일 등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기하학무늬는 가디건과 니트의 앙상블에 많이 표현되었으며, 코트는 플라워와 체크무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디테일을 사용하지 않고 화려함과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또한 가디건은 자켓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며, 플랫칼라와 짚엮 또는 단추를 사용하였다. 앙상블니트는 라운드네트라인이 많이 나타나며, 목선의 반쯤 올라오는 네크라인이 나타난다. 하의는 기하학무늬와 플라워무늬를 활용한 스커트와 큰 꽃무늬를 이용한 슬랙스가 나타나기도 한다. 짚엮과 라운드네트라인의 샷저자켓형태의 모직 또는 니트 자켓이 많이 보여진다.

디테일은 비즈, 스티치, 레이스 등의 디테일을 이용해 목선 주위 또는 햄라인을 장식하여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자켓을 중심으로 코사지를 활용하여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다. 데님, 금속사가 더해진 복합소재, 광택소재 등의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좀 더 캐주얼한 이미지와 쿨한 이미지, 페미니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모라도는 로맨틱시즘과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세미피티드와 박시실루엣, 이색이상의 색상의 조합, 유채색 또는 유채색과 무채색의 복합적인 사용, 밝은톤, 부드러운 재질의 사용이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많이 나타나 모라도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분석된다. 상의는 세미피티드형태(48.8%)와 박시형태(39.0%)가 많이 나타났는데, 라인이 슬림하게 보여지는 세미피티드형태보다는 박시형태에서 허리라인이 살짝 들어가는 유형이 많이 나타나, 편안한 스타일의 자켓과 가디건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의는 H형(75.0%)과 플레어형(16.7%) 스커트가 나타나 편안한 스타일의 플레어스커트가 타 브랜드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색상은 상의는 단색보다 이색이상의 색상이, 하의는 이색이상보다 단색이 나타나 상의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고, 하의는 단색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색채는 RP(22.2%)과 WH(19.0%), BK(19.0%)이 많이 나타나 RP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톤은 밝은톤(52.4%), 어두운톤(25.4%), 선명한톤(15.9%)로 선명한 톤의 사용이 타 브랜드보다 많이 나타났는데, 하의에서 어두운톤(35.0%)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선명한톤(25.0%)과 밝은톤(30.0%)의 사용이 타 브랜드에 비해 두드

리지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선명한 R과 다양한 톤의 RP의 색상이 보여지며, 유사배색, WH와의 배색이 많이 나타났다. 검정색과 선명하고, 밝은톤의 대조배색과 밝은톤과 은은한톤의 유사배색이 나타난다.

재질은 딱딱한 재질, 부드러운 재질이 사용되었는데, 상의는 주로 딱딱한 재질(51.2%)과 부드러운 재질(31.7%)이 보여진다. 하의는 딱딱한 재질(80.0%)이 주로 나타나며 광택있는 재질(10.0%)도 하의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늬는 무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플라워 무늬가 나타났는데, 다른 무늬보다 플라워 무늬를 주로 사용하여 전체에 표현함으로써 화려함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상의의 자켓, 가디건 등에 지수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무늬표현하며,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 비즈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테일러드칼라와 4~5버튼, 포켓의 단순한 디자인의 자켓은 전체에 플라워무늬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무지의 자켓은 햄라인을 중심으로 이색의 바인딩 또는 무늬, 비즈 장식을 통하여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마담정장브랜드의 공통점으로는 상의는 세미피티드와 박시의 실루엣으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으며, 색상은 주로 밝은톤을 사용하여 화사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하의는 밝은 톤과 함께 어두운 톤이 두드러지며, 유사배색과 대조배색이 나타난다. 색상은 상의는 주로 이색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 하의는 단색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B, PB, R, RP 계열의 유채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무늬는 무지, 플라워, 기하학무늬가 상의 전체에 나타났다. 또한 상의

는 하의보다 무늬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 플라워 무늬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무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디테일의 사용은 브랜드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재질을 살펴보면 상의는 부드러운 재질과 딱딱한 재질이, 하의는 딱딱한 재질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디테일은 단추, 포켓, 바인딩 등이 나타난다. 하의는 대체적으로 H라인의 실루엣과 어두운톤을 사용하며 딱딱한 소재를 이용하여 다리가 너무 야위어 보이거나, 뚱뚱해 보이는 등의 실루엣이 흐트러져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있었다. 하의는 무늬를 사용하기 보 무지를 이용하여 상의의 무늬가 있는 의복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 원피스는 H라인의 실루엣으로 밝은톤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무늬를 이용하여 여성스럽고 편안하게 신체의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마담정장브랜드의 차이점으로는 닥스는 스커트에서 플리즈 스커트가 주로 나타나며, Y와 YR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하의는 어두운톤과 은은한 톤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체크 등의 무늬가 많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상하의, 원피스 모두 무늬의 사용이 많으며, 특히, 체크무늬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무늬는 전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고, 부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까르뜨니트는 타 브랜드에 비하여 상의와 하의 모두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부드러운 소재는 주로 니트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졌으며, 니트조직감이 나타남을 이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어 무늬의 사용은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

표 3. 브랜드별 특성

브랜드명		닥스	까르뜨니트	에스칼리에	모라도
조형적특성	실루엣	상의	세미피티드, 박시	세미피티드, 박시	세미피티드, 박시
	톤	상의	밝은, 은은한	밝은, 어두운, 선명한	밝은, 어두운
소재	상의	하의	어두운, 은은한	어두운, 밝은	밝은 어두운
	상의	하의	딱딱한, 부드러운	부드러운, 딱딱한	부드러운
무늬 & 디테일	상의	하의	딱딱한	딱딱한, 부드러운	딱딱한, 부드러운
	상의	하의	격자, 스트라이프 등 무늬의 사용 많음	부분적 무늬의 사용	플라워 등 무늬의 사용이 많음
		단추, 포켓 사용	비즈, 스티치, 레이스, 코사지 사용	니트 조직감 이용	상의에 큰 플라워 무늬 사용
		원피스 벨트장식		짚엠티, 큐빅, 프릴, 러플 사용	바인딩, 비즈의 사용



된 무늬는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밝은톤을 중심으로 어두운톤이 나타나며, 선명한 색상의 사용도 많이 보여진다. 무늬를 이용한 화려함을 절제하는 대신 비즈, 스티치, 레이스 등을 이용하여 니트에 여성스러움과 화려함을 부여하고 있다.

에스칼리에는 상의에 딱딱한 재질보다 부드러운재질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으며 하의에 밝은톤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상의와 하의에 부드러운 재질의 사용이 나타난다. 에스칼리에는 타 브랜드에 비하여 짙은스타일이 많이 나타내며, 큐빅, 프릴, 러플 등의 다양한 디테일이 사용되었다.

모라도는 하의에 H형의 실루엣과 함께 플레이어의 실루엣이 나타나며, RP의 색상과 함께 R의 색상이 강렬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하의에 선명한 톤이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디테일의 표현 중 햄라인의 바인딩과 비즈의 사용이 나타난다.

4.2. 디자이너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디자이너브랜드인 클라라운, 이동수, 켈리나운, 까르벤정을 분석하였다. 각 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상의를 중심으로 조형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며 하의와 원피스는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까르벤정은 유럽풍 정통 스타일로 귀족적 감각을 표현하였다. 세미피티드와 박시실루엣, 이색이상의 색상조합, 유채색과 은은한톤의 컬러, 부드러운 재질의 사용이 관찰빈도보다 기대빈도가 많은 빈도를 나타내어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박시한 형태(57.1%)가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세미피티드형태(35.7%)가 나타나고, 하의는 주로 H형의 스커트가 나타난다. 색상은 RP(19.0%), WH(19.0%), B(14.3%)의 색상이 보여지며, 톤은 밝은톤이과 은은한톤이 사용되었다. 상의는 밝은톤(50.0%)과 은은한톤(42.9%)이 주로 나타나며, 하의는 밝은톤(85.7%)과 어두운톤(14.3%)이 나타났는데, 타 브랜드에 비하여 하의의 밝은톤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밝은 톤과 은은한 톤을 사용한 유사배색이 주로 나타난다. 재질은 딱딱한 재질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였다. 상의에서 딱딱한 재질과 부드러운 재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하의는 주로 딱딱한 재질을 사용하여 체형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었다.

무늬는 무지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플라워와 스트라이프의 무늬를 사용하였다. 무늬는 주로 상의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스트라이프는 대조배색과 유사배색을 동시에 이용하여 여러색상을 사용하였다. 코트는 주로 컨버터를 칼라를 사용하였으며, 자켓은 기본적인 테일러드 칼라 이외에 라운드형이나 스탠드칼라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하의는 무늬를 사용하지 않은 무지가 주를 이룬다. 자켓은 단추의 사용 뿐만 아니라 짙은 색을 사용하기도 하며, 큐빅을 이용하여 단추에 화려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햄라인에 바인딩을 이용하거나 브레이드를 이용한 디테일이 보여진다.

클라라운은 로맨틱, 트레이디셔널 엘레강스, 프리티한 이미지

표 4. 디자이너브랜드의 상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분석
관찰빈도(기대빈도) %

디자이너명	클라라운	이동수	켈리나운	까르벤정		
디자인특성	세미피티드	19(15.4) 57.6	16(15.8) 61.5	18(14.7) 81.8	10(8.8) 35.7	
	피티드	14(12.5) 42.4	3(3.9) 11.5	0(3.0) 0.0	0(3.5) 0.0	
	실루엣	박시	0(0.7) 0.0	7(5.5) 26.9	4(2.9) 18.2	16(14.0) 57.1
		A	0(4.4) 0.0	0(0.8) 0.0	0(1.5) 0.0	0(1.8) 0.0
	전체	33(33.0) 100.0	26(26.0) 100.0	22(22.0) 100.0	28(28.0) 100.0	
$\chi^2 : 54.163 (p<0.001)$						
색상	단색	29(26.7) 87.9	5(9.1) 19.2	10(12.7) 45.5	16(20.0) 57.1	
	이색이상	4(6.3) 12.1	21(16.9) 80.0	12(9.3) 54.5	12(8.0) 42.9	
	전체	33(33.0) 100.0	26(26.0) 100.0	22(22.0) 100.0	28(28.0) 100.0	
$\chi^2 : 28.721 (p<0.001)$						
유/무 채색	유채색	18(15.4) 54.5	21(18.7) 80.8	14(13.9) 36.6	22(18.7) 78.6	
	무채색	13(13.3) 39.4	2(4.8) 7.7	4(4.6) 18.2	4(8.0) 14.3	
	복합	2(4.2) 6.1	3(2.4) 11.5	4(3.5) 18.2	2(1.3) 7.1	
	전체	33(33.0) 100.0	26(26.0) 100.0	22(22.0) 100.0	28(28.0) 100.0	
$\chi^2 : 12.397 (p<0.5)$						
톤	밝은	19(16.1) 57.6	18(15.7) 69.2	16(17.4) 72.7	14(17.3) 50.0	
	선명한	2(3.5) 6.1	1(1.2) 3.8	0(0.0) 0.0	0(0.0) 0.0	
	은은한	3(2.8) 9.1	5(4.8) 19.2	0(1.2) 0.0	12(8.0) 42.9	
	어두운	9(10.5) 27.3	2(4.2) 7.7	6(3.0) 27.3	2(2.7) 7.1	
	전체	33(33.0) 100.0	26(26.0) 100.0	22(22.0) 100.0	28(28.0) 100.0	
$\chi^2 : 25.117 (p<0.01)$						
재질	딱딱한	4(4.9) 12.1	15(16.9) 57.7	12(15.1) 54.5	18(21.3) 64.3	
	부드러운	23(17.6) 69.7	6(4.8) 23.1	8(4.6) 36.4	6(4.0) 21.1	
	비치는	5(8.4) 15.2	4(3.0) 15.4	2(2.3) 9.1	2(1.3) 7.1	
	광택있는	0(0.7) 0.0	0(0.0) 0.0	0(0.0) 0.0	2(1.3) 7.1	
	복합	1(1.4) 3.0	1(1.2) 3.8	0(0.0) 0.0	0(0.0) 0.0	
	전체	33(33.0) 100.0	26(26.0) 100.0	22(22.0) 100.0	28(28.0) 100.0	
$\chi^2 : 32.175 (p<0.01)$						

를 표현하였다. 디자인특성을 분석한 결과, 세미피티드와 피티드실루엣, 단색의 사용, 유채색의 사용, 밝은톤의 컬러,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 기대빈도보다 관찰빈도가 많은 빈도를 나타내어 까르벤텐정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나타났다. 은 상의는 세미피티드형(57.6%)과 피티드형(42.4%)이 보여진다. 타 브랜드와 비교하여 신체의 라인을 드러내는 피티드형이 많이 사용되어 보다 젊은 이미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켓의 길이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여 트렌드를 반영한 짧은 기장으로 이루어졌다. 하의는 A형의 스커트(50.0%)가 많이 나타나며, 플레어와 트럼펫형의 스커트도 보여진다. 상의의 신체라인을 드러내는 형태와 하의의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통하여 신체를 X자형으로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색채는 BK(29.8%)와 WH(29.8%)가 많이 나타나며, YR, P, RP의 색상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톤은 밝은톤, 어두운톤, 선명한톤, 은은한톤 순으로 나타났는데, 어두운톤은 주로 BK를 통하여 나타나며, 밝은톤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상의는 밝은톤(57.6%)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하의는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어두운톤(66.7%)을 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밝은톤과 어두운톤을 이용한 대조배색이 많이 나타났다.

재질은 부드러운 재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비치는 재질, 딱딱한 재질이 사용되었는데,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실크, 새틴 등의 광택있는 재질과 비치는 재질이 복합된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상의는 부드러운 재질(78.08%)의 사용이 많이 나타났으며, 상의와 원피스에서 비치는 재질이 많이 사용되었다. 하의는 딱딱한 재질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비치는 재질과, 광택있는 재질, 복합 재질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무늬는 무지가 가장 많으며, 플라워무늬를 이용한 전체적인 프린팅이 나타난다. 원피스에서 무늬를 이용하여 화려함과 여성스러움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프릴과 리본의 장식을 목선과 허리선에 사용하며, 주름과 핀턱을 사용하여 다양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주름과 핀턱을 더하여 수공예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가디건은 칼라, 소매 등의 햄라인에 이색의 선을 넣거나, 앞면에 전체적으로 큰 플라워를 프린트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가디건과 니트에 브레이드와 비즈를 이용한 장식으로 부드러운 소재와 디테일을 이용하여 여성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동수 디자이너는 화려하고 우아한 기품과 고급스러운 세련미를 나타내는 엘리건트한 무드에 스포티함을 첨가하여 표현하였다. 박시한 실루엣, 이색이상의 색상조합, 유채색과 밝은톤의 컬러,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많은 빈도를 나타내어 이동수 디자이너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분석된다. 상의는 세미피티드형태(61.5%)가 주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박시형태(26.9%), 피티드형태(11.5%)가, 하의는 A형태와 트럼펫형태가 보여진다. 색상을 살펴보면 상의는 이색이상(80.0%)이 주로 나타나며, 하의는 단색(66.7%)이 주로 나타났다. 상의는 유채색 중심으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주색채는 R(16.3%), PB(14.0%), YR(14.0%)로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었

다. 톤은 밝은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은은한톤과 어두운톤이 나타났다. 상의는 밝은톤과 은은한톤을 중심으로, 하의는 밝은톤과 은은한톤, 어두운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유사배색이 주로 나타난다. 재질은 딱딱한 재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드러운 재질, 비치는 재질이 사용되었다. 상의는 딱딱한 재질(57.7%)과 함께 부드러운 재질(23.1%), 비치는 재질(15.4%)이 다양하게 사용된 반면, 하의는 대부분 딱딱한 재질(87.3%)을 사용하였다.

무늬는 무지, 플라워, 추상무늬, 복합무늬 등의 프린트를 주로 사용하였다. 상의에 플라워, 기하학, 복합무늬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프린트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장은 심플한 라인과 함께 다양한 무늬의 사용하여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어, 큐빅, 비즈 등의 디테일 사용은 절제되었다. 그러나 점퍼 등은 드로스트링과 스티치 등을 사용하여 활동성과 캐주얼함을 표현한다.

셀리나운은 우아한 아름다움과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분석결과 세미피티드실루엣, 이색이상의 색상조합, 어두운톤의 사용, 부드러운 소재의 사용이 관찰빈도보다 기대빈도가 많은 빈도를 나타내어 두드러진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상의는 세미피티드형태(81.8%)와 박시형태(18.2%)가 나타나며, 스커트는 H형 스커트와 트럼펫형 스커트가 보여진다. 단색과 이색이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주색채는 WH(26.3%), B(15.8%), P(15.8%)가 많이 나타났다. 톤은 밝은톤, 어두운톤, 은은한톤으로 나타났는데 상의는 밝은톤(72.7%)과 어두운톤(27.3%)이, 하의는 밝은톤(83.3%)과 은은한톤(16.7%)이 나타나, 타 브랜드와 비교하여 하의에 밝은톤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어두운톤의 사용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상의와 하의의 밝은톤과 유사배색을 이용하여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재질은 딱딱한 재질, 부드러운 재질, 비치는 재질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상의는 딱딱한 재질과 부드러운 재질이 주로 사용되었고, 하의는 슬랙스는 딱딱한 재질이, 스커트는 딱딱한 재질과 비치는 재질이 사용되었다.

무늬는 무지가 많이 나타나며, 상의는 플라워, 기하학무늬, 복합무늬 등이 사용되었고, 하의의 스커트에 플라워 무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디자이너부띠끄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화려한 무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무늬에 자수를 더하기도 하였다. 자켓은 기본적인 테일러드칼라보다 컨버터블칼라를 이용하여 보다 활동적이며 캐주얼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포켓을 중심으로 단추나 질감을 사용하여 디테일을 표현하여 활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플라우나 티셔츠에 프릴을 이용하여 여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디자이너너부띠끄브랜드의 디자인특성은 H형의 세미피티드로 신체의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색상은 B, G, R, PR의 유채색이 많이 나타나며 상의는 밝은 톤이, 하의는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이 나타났다. 재질은 상의는 니트류의 부드러운 재질과 딱딱한 재질이 많이 나타나며 하의는 주로 신체를 커버할 수 있는 딱딱한 재질로 나타났다.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광택소재,

비치는 소재의 사용 또는 복합소재의 사용이 나타나며, 프릴, 리본, 단추, 포켓, 바인딩 등의 디테일을 사용하여 수공예적인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디자이너부띠끄브랜드는 웰빙의 영향으로 G컬러상의 밝은톤의 사용과 함께 하의에도 밝은톤이 사용되었으며, 딱딱한 재질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무늬는 상의는 플라워나 기하학의 무늬가 사용되고 있으며, 하의는 주로 무늬를 사용하지 않는다.

클라라운은 타브랜드와 비교하여 상의의 피티드실루엣이 나타나며 하의는 A, 트럼펫, 플레어의 형태로 나타나 X형의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선명한톤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상의와 하의의 대조배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의와 원피스는 비치는 재질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원피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하학무늬나 복합무늬가 전체적으로 사용되었다. 클라라운은 디자이너부띠끄브랜드로서 수공예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원피스 또는 상의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핀턱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상의에 비즈, 바인딩, 프릴, 레이스등의 다양한 디테일을 사용하였다.

이동수는 하의에 밝은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사배색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의에 플라워무늬뿐만 아니라 기하학, 복합무늬 등의 다양한 무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였고, 하의의 바지에도 플라워 또는 추상무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화려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다양하고 큰 사이즈의 무늬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표현하는 대신 비즈나 프

릴 등의 디테일은 자제하여 화려하지만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셀리나운은 하의 스커트에서 H형의 실루엣이 나타나며 상하의 모두 밝은톤을 사용하였으며, 유사배색을 나타내었다. 자켓에서도 테일러드칼라보다는 컨버터블칼라 또는 스탠드칼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포켓을 중심으로 단추나 짚엷을 사용하여 브랜드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자켓은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디테일을 사요한 반면 블라우스나 티셔츠에는 프릴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상의에서 다른 브랜드는 세미피티드의 실루엣이 많이 보이지만 까르벤정은 박시한 실루엣이 주로 나타난다. 상하의 모두 밝은톤이 보여지며 전체적으로는 상하의의 유사배색을 중심으로 코디네이드 되어진다.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광택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디테일은 짚엷과 바인딩이 주로 나타나며, 단추에 큐빅을 사용한 디테일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4.3. 마담정장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비교

마담정장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동수와 닥스는 무늬를 이용하여 엘레강스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동수는 꽃무늬, 추상무늬 등의 크고 다양한 색상의 대담한 무늬를 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화려함을 나타내는 반면, 닥스는 톤다운된 옐로의 카멜컬러와 검

표 5. 브랜드별 특성

브랜드명		클라라운	이동수	셀리나운	까르벤정
조형적특성	실루엣	상의 세미피티드, 피티드	세미피티드, 박시	세미피티드, 박시	박시,세미피티드
	톤	상의 밝은	밝은, 은은한	밝은, 어두운	밝은, 은은한
소재	하의	어두운	밝은, 은은한, 어두운	밝은, 은은한	밝은, 어두운
	상의	비치는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딱딱한, 부드러운	딱딱한, 부드러운
무늬 & 디테일	하의	딱딱한, 비치는, 광택있는, 복합	딱딱한	딱딱한, 비치는	딱딱한
		원피스 기하학, 복합무늬 전체적 사용 비즈, 바인딩, 프릴, 레이스 핀턱 등 다양한 디테일 사용	플라워, 기하학, 복합 등 다양한 무늬전체적으로 사용 무늬의 사용으로 디테일 자제	컨버터블칼라 사용 포켓에 단추, 짚엷 사용 블라우스, 티셔츠 프릴 이용	짚엷과 바인딩의 사용이 많이 나타남 스탠드 칼라 사용 단추에 큐빅 사용

사진



정색을 이용한 고유체크무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칼라, 커프스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고급스러움과 중후함을 표현하고 있다.

까르뜨니트와 에스칼리에는 니트의 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브랜드이다. 두 브랜드 모두 니트전문 브랜드로 knit와 woven을 이용하여 브랜드를 표현하고 있다. 두 브랜드 모두 니트전문 브랜드답게 상의, 하의에 모두 부드러운 소재인 니트의 사용이 많이 나타난다. 에스칼리에는 니트의 조각감을 이용하거나 무늬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며, 니트의 단조로운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기위해 성근 니트짜임 이용하여 프릴 등의 다양한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까르뜨니트는 니트의 단순한 디자인을 살리는 대신 네크라인, 햄라인 등에 비즈, 큐빅, 스티치를 사용하여 단순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까르벤징과 셀리나운은 화려한 디테일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짚엃과 단추 등을 사용하여 브랜드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 까르벤징은 짚엃 스타일의 재킷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타나며, 단추에 큐빅을 사용하여 아름답고 수공예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셀리나운은 포켓에 단추 또는 짚엃을 디테일로 부착하여 화려하지 않으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모라도와 클라라운은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선명한 컬러의 사용을 통하여 화사함을 표현하고 있다. 클라라운은 상의의 퍼트되는 실루엣과 선명한 컬러와 하의의 어두운 컬러의 대조배색을 통하여 화려함과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으나, 모라도는 하의를 중심으로 선명한 컬러를 다른 브랜드에 비해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화사함과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마담정장 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의 차이 살펴보고 있다.

마담정장 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의의 실루엣은 대부분 박시 스타일에서 라인이 조금 들어가 실루엣을 나타내는 세미피티드 실루엣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박시한 실루엣도 가미된다. 시즌의 영향으로 상의는 주로 밝은톤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여기에 하의의 어두운 톤이 많이 나타나며 밝은톤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재는 상의는 딱딱한소재와 부드러운소재가 중심으로 사용되며 하의는 주로 딱딱한 소재로 표현되고 있었다. 무늬는 상의는 무지와 플라워무늬와 기하학무늬 등을 사용하였으며 하의는 무지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담정장 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색상은 마담정장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G컬러의 사용이 나타나며 디자이너 부띠끄 브랜드에서는 B컬러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마담정장 브랜드는 유사배색과 함께 선명한 대조배색이 많이 나타나며,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는 유사배색이 주로 나타났다. 무늬는 무지와 함께 플라워, 기하학 무늬, 추상무늬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마담정장 브랜드에 비해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는 다양한 무늬를 이용하여 더욱 화려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담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는 각 브랜드간의 조형적 특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마담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의 프라이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브랜드는 무늬의 종류, 무늬의 전체적인 사용이나 부분적인 사용, 짚엃과 단추의 세부적인 디테일의 사용, 비즈, 레이스, 러플 등의 다양한 사용, 또는 브랜드의 특성에 따른 소재의 사용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실버패션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브랜드간의 디자인 특성의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노년층 고객의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중요한 것이다.

5.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버브랜드의 디자인개발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형에 따른 디자인 전략이다. 노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많은 시기이며 젊은시절의 체형과 비교하여 굴신과 변형이 생기게 됨으로 의복으로 인한 체형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마담정장 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의 실루엣은 세미피티드가 주로 나타난 것은 신체적인 변화에 어울리도록 하며,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면서 실루엣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딱딱한 소재를 이용하여 여유있는 세미피티드의 실루엣을 통하여 신체의 결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추구하고자하는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 전략이다. 대부분의 마담/실버 브랜드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담정장 브랜드와 디자이너부띠끄 브랜드의 실루엣을 살펴본 결과 세미피티드와 박시실루엣 등의 실루엣의 변화가 제한적인 반면 프릴, 리본 등의 디테일을 이용하여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엘레강스함과 각 브랜드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족적이며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한 밝은 톤과 은은한 톤의 색상을 이용한 유사배색의 사용, 캐주얼한 감각과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선명한 톤의 대조배색과 유사배색의 사용 등을 통하여 추구이미지를 차별화하며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디자인 포인트에 따른 디자인 전략이다. 실버세대를 위한 브랜드는 조형적 특성의 분석 결과 타브랜드와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브랜드마다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무늬, 디테일을 통하여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버세대를 위한 브랜드는 자신의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무늬, 비즈, 프릴 등의 디테일을 디자인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세대를 위한 브랜드는 아이템의 전체 또는 부분에 다양한 무늬를 프린트하여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의는 무지를 이용하여 단정함을 나타내며, 상의는 무지를 이용하여 차치 톤다온되어 보일 수 있는 피부톤을 좀 더 화사해 보이도록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서로 비

스해 보이는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무늬를 개발하여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햄라인의 이색 김프, 바인딩, 스티치 등 브랜드 고유의 조형적 특성이 나타난 포인트를 개발하고 추구함으로써 화려함과 화사함의 표현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차별화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고령자들을 위한 디자인이 부족한 실정에서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을 분석하여 고령자들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버세대를 위한 브랜드의 디자인을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디자인이 실제 실버층에게 얼마나 선호되고 있는가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실버세대를 위한 브랜드의 디자인분석이 06 S/S에 국한되어 있어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와 여러 시즌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혜경 (1999), 신체장애와 특수의복, 교문사.
 남윤자·유희숙 (1996), 노인계층의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I) 노년 여성의 연령 및 체형별 신체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만족도-, 한

국의류학회지, 20(6), pp.962-974.
 박재욱·김일분 (1985), 노인 여성의 의생활 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과학논집, 11, pp.87-100.
 배현숙·유태순 (2000), 노년층 여성들의 의복 구매 형태에 따른 의복 구매 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5(1), pp.373-388.
 백재은 (2005), 노년 여성의 패션에 관한 태도와 기성복 재킷의 선호 디자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pp.990-998.
 서미아·이선희 (1995), 노년기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1), pp.41-64.
 이관이 (2004), 이상적 여성미와 패션디자인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경숙 (2000), 노인의 성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 및 구매에 관한 연구, 복식, 50(7), pp.155-163.
 장안화 (2006),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8(5), pp.496-504.
 정삼호 (2005), 국내·외 실버 브랜드에서의 패션 트렌드 반영에 관한 연구, 복식, 55(2), pp.1-17.
 최혜선 (2002), 노인과 의복, 한국생활환경학회지, 9(1), pp.1-7.
 Horn, M.J. & Gurel, L.M.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Kernaleguen (1978). A clothing designs for the handicapped. Edmonton: The University of Alberta Press.

(2007년 12월 10일 접수/2008년 5월 2일 1차수정/2008년 6월 6일 게재확정)